

요약

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횟수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비현금 결제 비중이 증가함.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베트남에서는 정부 지원 등을 기반으로 선구매 후결제 (Buy Now, Pay Later; BNPL)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 BNPL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,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

-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횟수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비현금 결제 비중이 증가함
 -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(VECOM)와 중앙은행에 의하면 2022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% 성장한 1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전자지갑이나 결제 앱을 통한 비현금결제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85% 증가함¹⁾
 - 베트남은 온라인 쇼핑 시 주로 물건을 받은 후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불방식(Cash On Delivery; COD)을 사용하고 있으나, 비현금 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COD 비중은 2015년 91%에서 2022년 73%로 감소함
 - 베트남 정부는 '25년까지 현금 사용률 8% 미만을 목표로 비현금 결제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, 6월 16일을 'No Cash Day'로 지정하여 비현금 결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
-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베트남에서는 비현금 결제 시장의 확대와 젊은 인구구조, 스마트폰 사용률의 증가, 정부 지원 등을 기반으로 선구매 후결제(Buy Now, Pay Later; BNPL)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
 - BNPL은 소액한도 내에서 후불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식으로, 결제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무이자로 일정 기간을 나눠서 납부하는 무이자 할부 결제 시스템으로 2019년에 등장함
 -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22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9,350만 명으로 베트남 성인 인구의 73.5%가 사용 중이며, 신용카드 보급률은 4%로 주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함
 - '22년 아시아 국가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말레이시아 23%, 태국 11%, 인도 3%, 필리핀 2%로 신용카드 보유율이 낮을수록 BNPL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²⁾
 - 코로나19 이후 비현금 결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결제 비율이 높고, 국가 차원에서도 비현금 결제 확대를 위한 결제증개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어 BNPL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

1) VECOM(2023), "Vietnam E-Commerce Business Index 2023"

2) Morning Consult(2023), "'Buy Now, Pay Later' User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Overdraft Than Nonusers"

